제2019-1호

바 르 게 행동하고
슬기롭게 생각하며
건강하게 자 라 는
우 암 어 린 이

통일교육연구학교

통일꽃이 피었습니다

발 행 처 우암초등학교
발 행 인 교장 안종복
편집고문 교감 윤원자
편 집 인 교사 이연심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204 ☎ (043) 256-3487 http://www.cjuam.es.kr

"내가 누군지 아니?"

- DMZ 동식물 이야기 -

올해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문재인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곧 비무장지대는 국민의 것이 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된 자연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그곳이 바로 천연 그대로의 DMZ, 비무장지대입니다.

마지막 남은 미지의 땅, DMZ는?

비무장지대(DMZ)는 군사 분계선 기준으로 동서 길이 250㎞, 폭 4㎞로 그 면적이 무려 886㎢이고, 오랜 시간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되어 천혜의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습니다. 작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이 비무장 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멸종 위기의 희귀동물들

DMZ에는 재두루미, 흰꼬리수리, 수달, 어름치 등 이름조차 생소한 멸종 위기의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새들의 천국이라 불릴 만큼 다양하고 희귀한 조류들이 있는데, 그 중 전 세계에 남아 있는 두루미 2천800여 마리 중 800여 마리가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일원에서 월동을 한답니다.



이름도 낯선 희귀식물 다수 서식

환경부 국립생태원에서 DMZ일원 3개 권역의 생태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0여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5000여종의 야생 생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대청부채, 복수초, 벼룩아재비 등 생소한 이름들이 많지요?



남북은 판문점선언에 따라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는 한편, DMZ의 환경과 생태, 역사, 문화적 가치를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통일부 공식 블로그>

불어라 평화의 바람, 날아라 통일비행기

4월 8일(월)~12일(금)에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학교 전교생은 평화 통일을 염원하며 통일된 한반도와 대륙횡단열차가 그려진 지도를 색칠하였고, 그 지도를 접어서 종이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멀리 날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통일의 길에 닿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친구들과 함께 종이비행기를 멀리 날려보았습니다. 우리학교 학생들의 통일을 향한 작은 소망이 평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켰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통일 속으로, 봄 현장체험학습

4월 17일(수), 1~5학년 학생들은 봄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1~2학년 학생들은 천안 유관순열사 기념관, 생가 체험 활동을 통해 나라사랑 정신을 배우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분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5학년 학생들은 대전 현충원에 가서 6·25전쟁 등 나라가 어려웠을 때 큰 희생정신을 보여 주신 분들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고 더 큰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번 봄 현장체험학습을 통하여 우리학교 학생들이 친구와 함께 나라사랑하는 마음도 키우고 통일의 의지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통일교육주간 운영

5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통일교육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통일교육주간 행사는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 간 진행되며, 올해는 지난해 9월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으로 첫 법정 교육주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학교에서도 5월 20일(월)~24일(금)까지 통일교육주간이 운영되어 통일을 기원하고 통일한국을 상상해보며 공감과 소통을 통해 평화의 감수성을 기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명	행사내용	참여 학년
통일을 만나다, 부스운영	통일 책갈피 만들기	1-6
	통일 부채 꾸미기	
	통일 열쇠고리 만들기	
	평화의 퀴즈룰렛	
	통일로 골인	
	통일을 향하여	
	통일소감나무	
체험학습	청주 통일관 현장체험학습	1-4
보니하니 통일특집	통일부 백태현 선생님의 강의	4-6
통일 스포츠데이	통일상상 가족운동회, 통일카드뒤집기, 통일피구, 다같이 뛰어요, 통일계주	1-6
통일뱃지 만들기	뱃지에 통일 소망 담기	1-6
학년별 특색활동	통일나무만들기, 편지쓰기, 낱말카드찾기, 통일 줄줄이 말해요.	1-6





우암초에 오신 통일 선생님

- 통일교육주간 일일 교사로 백태현 선생님이 오셨어요. -

통일교육주간을 맞이하여 5월 21일(화)에 통일부 정책기획관 백태현 선생님을 일일교사로 초청하였습니다. 우리학교 어린이들은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평화와 통일에 대해 매우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통일은 나 하나만의 관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 할 때 이루어진다는 백태현 선생님의 말씀에 공감하였습니다.

어린이 회장 강민희 학생은 백태현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 통일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북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평화의 길, 통일을 걷다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통일교육 실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우암초 교직원들은 6월 1일(토) 파주로 통일교육공동워크샵을 다녀왔습니다. 분단 현장 탐방을 통해 남북 관계를 이해하고, 통일교육과 통일교육연구학교 운영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통일교육에 대해 교직원간 의사소통을 하며 학교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통일교육연구학교 운영에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교직원들이 함께한 평화의 길을 소개합니다.

[임진각]

휴전선에서 남쪽으로 약 7km 떨어진 지점에 있으며, 남북 분단이라는 한국의 비극적인 현실을 상징하는 이색적인 장소입니다. 특히 6.25전쟁의 비통한 한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1972년 북한 실향민을 위해 세워졌으며 철마는 달리고 싶다(철도중단점), 북한 실향민을 위한 망배단, 평화의 종 등 지금은 관광명소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3땅굴]

제3땅굴은 판문점 남방 4km 지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폭 2m, 높이 2m, 총길이는 1635m에 달하고 1시간당 3만 명의 병력 이동이 가능한 규모이며, 서울에서 불과 52km거리에 있습니다. 임진각에서 서북쪽으로 4km, 통일촌 민가에서 3.5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서울에서 승용차로 45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도라산 전망대]

도라산 전망대는 제3땅굴과 함께 DMZ민간인 통제구역이기 때문에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곳입니다. 도라산 전망대는 개성공단과 개성시 변두리 모습이 선명하게 육안으로 볼 수 있으며, 북한 선전마을도 볼 수 있습니다.

[도라산역]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철도역 중 하나입니다. 현재 남한 지역 경의선 내 휴전선 이전의 마지막 역입니다. 도라산역에서 서울까지는 56km, 평양까지는 205km 입니다. 도라산은 신라가 패망한 후 고려에 항복한 경순왕이 산마루에 올라가 신라의 도읍을 사모하고 눈물을 흘렸다 하여 "도라(都羅)"라 이름지어 졌다고 합니다.



연리지가 쏘아올린 통일의 꿈

우리학교에는 '연리지'라는 평화통일 학생동아리가 있습니다. 4~6학년 학생들로 이루어진 연리지는 통일을 준비하고 평화를 실천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했어요	찰칵 찰칵 찰칵
동아리 유니폼 티셔츠를 만들었어요. 친구들과 같이 입고 활동하고 있어요. 티셔츠를 입고 있으면 나 혼자가 아닌 우리가 되는 기분이에요. 통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멀리멀리 전해지길 바랍니다. 통일, 너를 만나면 심쿵!	
통일교육주간 부스 운영을 하였어요. 자기가 맡은 부스의 활동을 동생들과 친구들에게 설명해주며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해나갔지요.	
통일보드 게임을 했어요. 여러 가지 보드게임 중 유라시안 익스프레스 열차를 타고 통일 한반도를 떠나 시베리아, 중국, 몽골을 지나 유럽까지 여행하는 보드게임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더운 여름, 통일의 바람이 시원하게 불도록 우암초등학교와 청주대학교 학생들에게 부채를 나누어 주었어요. 더운 날씨에 땀이 많이 났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통일을 알리게 되어 뿌듯했어요.	
통일한마당에 참가했어요. 트위터 어플을 이용하여 북한 친구들에게 영상편지를 썼지요. 언젠가 북한 친구들이 우리 편지를 볼 수 있겠죠?	

통일교육, 프로젝트 수업을 만나다

6월 26일(수)에 통일교육 연구학교 수업 공개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학교에서는 1학기 동안 「통일한국 미래상상 놀·이·터 운영으로 남북갈등 해결 역량 강화」라는 주제로 17차시 이상의 프로젝트 수업을 구성하여 운영해왔습니다.

각 교실에서는 프로젝트 수업으로 놀이, 교육, 언어, 문화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통일 과정과 통일된 나라의 미래상상 활동을 펼쳐보았고, 이 중 한 차시 분량의 수업을 공개하였습니다. 학부모님과 통일교육에 관심 있는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참여한 이번 공개수업을 통해 북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관용과 공존, 화해의 가치관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년	프로젝트 주제	학년	프로젝트 주제
1학년	서로 알아가는 우리, 우리는 하나	5학년	BJ가 되어 북한 소개하기
2학년	초록이의 한반도 여행	6학년	서로 알아가는 우리
3학년	남과 북 하나의 KOREA	도움반	통일된 한반도
4학년	아랫동네, 윗동네 친구를 만나다	전담	미래상상 통일한국



천안함을 다녀와서

교사 조인수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쯤, 선선한 날이었을 것 같다. 어느 때와 같이 배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을 것이다. 북한의 불법 기습공격으로 이창기 준위를 비롯한 46명의 젊은 용사들이 바다에서 희생당하셨다.

나는 이곳을 우암초등학교 4학년 학생 30명과 6학년 학생 10명과 함께 다녀왔다. 해군기지로 들어가니 천안함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배의 모양을 완벽히 갖춘 채로 내 앞에 있었다. 천안함 가운데로 들어가니 반으로 갈라진 가슴 아픈 모습을 하고 있었다. 얽힌 선, 폭발로 갈라진 배의 모양이 눈에 들어왔다. 실물로 천안함을 보니 그 9년 전 상황을 상세히 알 수 있었다. 갑자기 일어난 폭침, 당시의 모습이 끔찍하게 다가왔다. 왜 우리는 이렇게 슬픈 현실을 맞이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견학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우리 아이들은 알고 있을까? 남과 북이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서로 경계해야하는 사이라는 것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남한과 북한, 불과 70년 전만해도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가던 하나의 민족이었는데 말이다. 천안함 기념관을 나오면서 돌아가신 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슬픔을 전해주면 안되겠다고 다짐하였다. 학교로 돌아오면서 현재보다 더, 평화로운 한반도를 꿈꾸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다.



호국 보훈의 달 이벤트

6월은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을 기리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를 맞이하여 전교 어린이회에서 호국 보훈의 달을 알리는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우암초 친구들은 6월 28일(금) 아침 등굣길에 6·25전쟁과 북한 관련 퀴즈 풀기 이벤트에 참여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목숨을 바친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북한에는 어떤 민요가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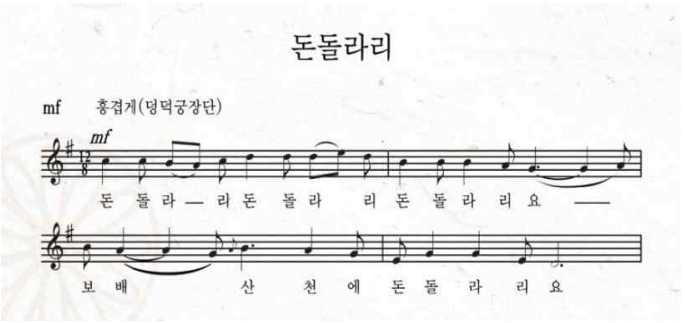
예로부터 민중들 사이에 큰 위로가 되면 불리던 전통적인 노래, 민요! 민요는 지역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북한에는 어떤 민요가 있을까요?

서부지방

서도민요는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의 노래로 유순하고 아름답고 유창하며 부드러우면서도 흥취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용가기나리, 수심가, 도라지, 박연폭포 등이 있어요.

동부지방

동부지방의 민요는 태백산맥 동쪽 지방의 민요로, 경상도민요가 빠르고 경쾌하다면 강원도·함경도민요는 한탄조와 탄식조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농부가, 돈돌라리, 강원도 아리랑 등이 있습니다.



'돈돌'은 '돌고 돈다, 제 자리로 돌아온다'의 의미로, 일제 강점기에는 '해방된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는 희망을 담아 불렀다고 합니다. 이제는 남북이 다시 하나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함께 불러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겨레의 흥취를 느낄 수 있는 민요들, 남북이 함께 부르게 될 그 날을 기대해봅니다.

<출처: 통일부 공식 블로그>

북한말 어디까지 알고 있니?

남북교류와 소통을 위하여 우리가 미리 알아두면 좋은 북한의 어휘와 표현을 소개합니다. 다음 밑줄 친 북한말을 남한말로 바꾸어보세요. 10개의 정답을 모두 적어 7월 12일(금)까지 영어실로 제출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1. 얘가 바로 내 **송아지동무**야.
2. 오늘부터 우리는 **딱친구**가 되었다.
3. 여름에 **색안경**은 필수지.
4. 초등학교 때, 봄가을 **원족**을 갔다.
5. 이 쪽 **유보도**가 시원하고 좋아!
6. 부모님과 헤어진 후 **홋어머니**와 살았어요.
7. **다이야** 바람이 빠지면 운전을 할 수 없다.
8. 가는 길에 **연유공급소**에 들러야 해요!
9. 날씨가 너무 더워서 **레루**도 휘어질 정도래.
10. 길을 건널 때는 꼭 **도로건늠길**로 건너야 해!